

# 혁신가의 발표

10911 노우찬

# 목차

- 1.실외마스크 해제에 따른 기사
- 2.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입장 + 반대 의견
- 3.발표자의 의견
- 4.전문가들의 의견(해결 방안)

# 1. 실외마스크 해제 (BBC NEWS 코리아 4월 27일자)

**오는 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2,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입장

손영래 반장: 실외는 애초에 감염율이 실내에 비해 낮기에 해제한  
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 실외마스크가 해제되  
면 사람들의 활동이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할 것이기에 감염율이  
내려간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실외에서는 공기 흐름이 있  
기 때문에 집단발생 보고 사례는 거의 없다  
번 주라도 실외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

정기석 한림대 성신병원 호흡기 내과 교  
수: 급하며 신규 확진자가 계속 하향 추  
세인 율과 치명률이 더 낮아진다면 실외  
마스크 해제 가능하다고 본다



#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국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면서 집회와 공연,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경우,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부분 해제한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까지 풀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 3.발표자의 견해

실외마스크 해제 초기엔 증가하겠지만 그 시기만 잘 보낸다면 더욱 쾌적한 야외 생활이 가능할 것 같기에 마스크 해제 자체는 찬성인 의견이다.



# 해결방안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신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도 해외와 다르게 한국은 야외라도 굉장히 밀접하게 모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되 1~2m 안에서 오랫동안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표자의 생각은 위 의견처럼 마스크를 벗되, 그만큼 더욱 각별히 조심하며 손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